

오거서
융복합
특강

르네상스

스스로

보기 | The Renaissance! See it for yourself!



강연 일정 및 장소

09. 17 ~ 12. 03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 **7**시 양 캠퍼스 교차

인사캠(다산경제관 32208호)

자과캠(삼성학술정보관 오디오리움)



성균관대학교
LINC 사업단



학술정보관
오거서

인01
9/17

르네상스 이후의 과학—예술과 의학의 융합

로마의 갈레누스의 사원소설은 서양의학의 핵심사상으로 무려 천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으나 르네상스 이후 인본사상, 합리론 등의 영향으로 서양의학은 실증적, 과학적 탐구의 길을 간다. 그렇다면 과연 의학은 예술인가 과학인가. 서양의학의 발전과정을 통해 해답을 모색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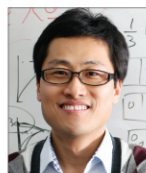


김호덕
본교 의과대학 교수

인02
10/1

우주는 <매트릭스>인가? —현대 과학이 발견한 실재성

양자역학은 우주를 이해하는 인간의 관점을 근본부터 뒤엎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고, 우리가 보지 않으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은 이제 실재성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넘어, 우주의 근원이 정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김상욱
부산대 물리교육 교수

인03
10/29

우주의 끝을 찾은, 별에서 온 우리

“한 인간은 보잘 것 없는 존재이나, 인류는 위대하다.” 왜? 우주 탐구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는 동시에 존재를 자각하기 때문이다. 본 강연에서는 우주 이해의 방법으로 우주의 구조와 크기, 블랙홀과 우주폭발, 빅뱅과 암흑에너지 등을 소개하며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류의 우주관을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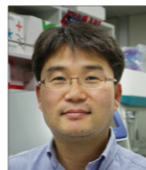


박일홍
본교 물리학 교수

인04
11/12

다윈, 진화론 그리고 식물의 기원

다윈은 200여년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화론을 제시하면서 생물의 기원과 다양성을 설명하였다. 진화론은 생물학 분야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 등 사회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현대의 진화론은 거듭된 실험과 가설검증을 통해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 수십 억년 간 축적된 생명의 비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본 특강에서는 다윈과 진화론, 그리고 유전체 분석을 통한 현대 진화론을 식물의 기원을 예로 하여 설명할 것이다.



윤환수
본교 생명과학 교수

인05
11/26

현대의 연금술—나노과학혁명

본 강연에서는 원자를 레고블록에 비유하였고, 이들을 활용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들을 조립할 수 있음을 쉽게 설명할 것이다. 원자의 작은 집합체로 이루어진 물질이 나노크기에 다다르게 되면, 이들이 나노재료가 된다. 이들 나노재료를 제어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면 결국 물질들을 제어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누가 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가? 아마도 “신(god)”만이 그 위치에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분야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꽤 많이 진행되었고, 발표되는 논문 내용도 경이롭다. 이러한 놀라운 진보를 일반 대중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먼저 “위에서부터 자르기”와 “아래서부터 쌓기”의 개념으로 그 발전상을 설명할 것이다.



박성호
본교 화학 교수

See it for yourself!

지혜를 찾는 사람들 자과캠

자01

9/24

르네상스와 문명의 장으로서의 지중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고대 가치의 재발견, 종교가 지배하던 중세로부터 인간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근대 문명으로 전환, 문예와 예술의 발흥의 의미로 다가온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절정을 이루었던 이러한 르네상스 이해를 넘어 오늘날의 학자들은 그 원인과 동력, 의의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유럽 중심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과장과 왜곡을 벗어나 그 시대와 사회, 그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본 강연에서는 지중해를 둘러싼 여러 문명들간의 뒤얽힘에 초점을 맞추어 그 틀 안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다시 조명한다.



윤비

본교 정치외교학 교수

자02

10/8

욕망과 인간의 재발견, 이념으로부터의 탈주(脫走)

전근대 사회는 인간의 욕망을 가두고 속박시키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다. 종교(宗教)나 도학(道學)의 이름을 내세워 종교적 인간형 내지 도학적 인간형을 추구하였다. 르네상스의 중요한 모토가 인간 부활인 것은 가둔 '욕망'을 끄집어내어 재인식한 것을 의미한다. 이념과 종교에 억눌린 다양한 욕망의 재발견은 전근대로부터의 탈주이자 새로운 세계를 향한 몸짓이었다. 욕망(성적 욕망 등)과 인간 다시 보기를 통해 그 의미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진재교

본교 한문교육 교수

자03

11/5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과 풍속, 권력과 욕망

14-16세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도시국가의 권력을 장악한 대상 가문의 후원 하에 전개된 문예운동이다. 이들의 후원을 받은 예술가들은 고대의 신화와 성서의 인물들을 이상화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풍속화를 만들었다. 또한 이 시기 유럽인들은 비유럽 식민지민들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재현했다. 르네상스 시대는 권력과 욕망이 예술과 풍속으로 다양하게 표출된 시기였다.



김택현

본교 사학 교수

자04

11/19

조선조 르네상스 정조시대의 '화성 건설'

정조시대는 조선의 르네상스이다. 각종 학문진흥과 제도의 개혁 그리고 민본정치를 이루려는 노력이 진행된 것이다. 특히 화성 건설은 계획된 신도시로 당시 실학사상과 과학적 지식이 총망라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최고 건축가 기술자들이 모여들어 최고의 실력을 뽐낸 곳이다. 그 리하여 수원 화성은 '성곽의 꽃' 계획된 신도시'의 모범이라 부르게 되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달호

수원화성박물관(전)관장

자05

12/3

몸의 동양철학적 이해

—유학의 '몸' 이해를 중심으로—

맹자는 사람의 몸에 큰 몸과 작은 몸이 있다고 한다. 마음을 몸과 같은 틀에서 이해하며, 마음 기르는 것을 몸 기르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선설이 나오고 호연지기 양성론이 나온다. 순자는 이와 전혀 다른 몸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있으며, 그 결론이 성악설이다. 이러한 유학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여, 불교와 도교의 몸에 대한 이해를 비교하여 동양 사상의 몸에 대한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성태용

건국대 철학 교수

추천도서

- 나노 기술 촉박인가 재양인가 (루이로랑 장 클로드 프티 지음, 이수지 옮김, 민음사, 2006)
- 노자와 21세기(상, 중, 하) (김용옥 저, 통나무, 1999)
- 르네상스 미술과 후원자 (이은기 지음, 시공사, 2002)
-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성태용 · 우희중 외, 도서출판 운주사, 2009)
- 몸과 문화 (홍덕선 · 박규현 지음,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 몸의 노래: 동양의 몸과 서양의 몸 (구리아마 시게히사 지음, 정우진 · 권상옥 옮김, 이음, 2013)
-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2: 르네상스, 매너리즘, 바로크 (아르놀트 하우저 지음, 반성완 · 백낙청 · 염무웅 옮김, 창비, 2012)
- 물리법칙의 발견: 양자정보로 본 세상 (블라트코 베드럴 저, 손원민 역, 모티브북, 2011)
- 사랑이야기: 담을 넘어 도망친 내시의 아내 (진재교 글, 김숙경 그림, 휴머니스트, 2012)
-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김동욱 지음, 돌베개, 2002)
- 아인슈타인의 베일: 양자물리학의 새로운 세계 (안톤 차일링거 지음, 전대호 옮김, 승산, 2007)
- 알아 주지 않은 삶 (진재교 편역, 태학사, 2005)
- 위대한 바다: 지중해 2만년의 역사 (데이비드 아블라피아 지음, 이순호 옮김, 책과함께, 2013)
-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아코프 부르크하르트 지음, 이기숙 옮김, 한길사, 2003)
- 재물 이야기: 쌓아 놓고 베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진재교 글, 정은희 그림, 휴머니스트, 2013)
- 정조대왕의 꿈 (유봉학 지음, 신구문화사, 2001)
- 풍속의 역사 2: 르네상스 (에두아르트 폭스 지음, 이기웅 · 박종만 옮김, 까치글방, 2001)
- 콰텀스토리: 양자역학 100년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 (짐 배것 저, 박병철 역, 반니, 2014)
- 18세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화성 건설 (이달호 지음, 해안, 2008)
- The Art of Medicine (J Anders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수강생 특전

1. 양 캠퍼스 6강 이상 또는 캠퍼스별 전강좌(5회) 참석자
인성품 “자기발견영역” 인정
— 그 외 강좌별 수강생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 인정
 2. 추천도서 리뷰 작성자 신청도서(20명 한정) 선물
 3. 10강 전체 수강자는 융복합특강 수료증 발급
- ※ 수강신청은 공지문에 첨부한 양식으로
이메일(openbook@skku.edu) 신청

문의

오거서 book.skku.edu

학술정보관 오거서 담당 (031-299-4022)